

데스크 시각

국민의당 결코 ‘폭망’해서는 안 된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최근 만난 국민의당 초선 의원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국민의당 현실에 대해 물었다. ‘폭망 정당’(폭삭 망한 정당)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은 조롱 대상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폭망’이 증명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의원 한 번 했으면 됐지 미련도 없다”는 이 의원. 가장 정치적 열정이 뜨거울 초선 의원이 서슴없이 내뱉는 이러한 자조 섞인 발언에서 국민의당이 마주하고 있는 혹독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은 90%대를 기록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6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라고는 하지만 이에 비해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의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3당의 현실도 남루하다. ‘혁신’을 지렛대로 강력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보다는 여야 사이에 끼여 정

지적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정치적 좌표 설정에 실패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좌표 잃은 제3당의 위기

국민의당 집안 사정도 좋지 않다. 중진과 초선 사이의 간극은 여전하며 흩어진 당심은 좀처럼 결집되지 않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리더십이 형성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내부 결속을 이끌고 강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민주당 합류설에서부터 통합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연말이냐, 지방선거 이후를 기점으로 한 구제적 국민의당 붕괴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는 판이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다당제의 불꽃을 틈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에 이어 정치적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숫자의 착시를 극복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론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는 잘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포함되

어 있다. 거품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낮은 지지율에 절망하기는 이르다. 지난 대선 호남이 국민의당에 30%대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 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철수 후보의 패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높은 지지는 국민의당의 생존을 바라는 민심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호남 민심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 체제로 이끈 ‘공약 경쟁’ 등 정치적 부수 효과를 이미 체험했다. 국민의당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있는 셈이다.

생존의 길은 협치와 혁신

여소야대 현실도 국민의당의 재기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제3당의 정체성을 보여야 한다. 해법은 민생을 기반으로 하는 ‘협치와 혁신’이다. 국민의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협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협치의 주체로 나서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민심을 선점해야 한다. 민주당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놓고 보여 준 국민의당의 어정쩡한 모습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3차 청문회 정국과 주경 처리 등에서 국민의당은 민심을 토

대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 다른 생존 포인트는 혁신이다. 안철수와 호남을 넘어서는 새 정치의 실체를 제시해야 한다. 8월 전대에서 혁신이 이슈가 돼야 하는 이유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 공전의 복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이 이끄는 정치단체 ‘앙마르슈’(En marche·전진)가 혁신 공전으로 총선에서 과반을 휩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기존의 구도를 흔들어야 한다. 혁신은 시대적 요구다. 국민의당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최대의 정치 공학은 민심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다당제는 선진 정치 문화로 가는 첫 걸음이다. 국민의 다양화된 요구를 반영하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다당제는 승자 독식인 소선거구제를 개편, 광국적 지역적 양당 구도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협력한다면 선거구, 대의제, 정당법이 협력한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고 이는 호남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능력이 아닌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는 현실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도 국민의당이 ‘폭망’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민의당의 헌신과 노력을 기대한다.

은펜칼럼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효사상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우리의 효(孝)사상은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각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효의 전통은 농경문화가 내려오면서 가족 단위의 생활습관이 효의 모델로 이어져 왔다.

과거 농경사회에선 경험이 중시되고, 노인들은 그런 경험이 많았으므로 어른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다. 이 실제적인 능력이 효도와 맞물리면서 노인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인 노인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같이 노인들이 존경의 대상이었다.

전통적으로 노인 하면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오래 사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이다. “노인 한 분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로 아프리카에선 한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직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60년대부터 추진한 경제개발을 통하여 세계가 만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황금만능주의 풍조와 임시 우선주의와 같은 사회적 모순 속에 어른을 대접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정신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 결과 극도의 이기심만을 심어 놓은 사회가 되었다. 똑똑한 젊은이는 많은데 예절이 바른 젊은이는 주위에서 찾기 어려운 세상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핵가족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난날 노인의 권위나 설득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화·물질 속의 각종 분야의 전문가와 웹 검색 도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존중 문화는 시대 역행적인 구시대의 유풍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웃과 소통

하지 못하고 사이버 세계에 표류하는 젊은이들이다.

이처럼 개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은 늘어났지만, 그것들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지식 중심교육이 아닌 인간 중심교육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절실해지고 있음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청소년범죄와 맞물려 공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효행 교육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효행 교육이란 말이나 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야 한다. 부모가 무의식중에 하는 말이나 도하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자녀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된다. 소위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자녀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까닭이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일가친척이나 조부모를 찾아뵙는 날을 정하여 계획사와 사후 결과물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결로 인정하는 체험학습 등은 계속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귀성행렬로 전

국 고속도로가 정체되면서 어김없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조상과 어른을 받들고 찾는 마음자리가 자손 대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진정한 효의 의미는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현대문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의 효사상을 주목하고 있다. ‘역사의 연구’를 쓴 토인비는 “장차 한국문화가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효사상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구의 합리주의로는 이해하기 힘든 혼돈한 인간만이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 있음이다. 오늘의 세계가 상실한 가치, 우리의 효사상을 살려 나갈 때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월봉서원과 문화중심도시 연계 육성했으면



전준산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수도 광주’를 조성하는 국가적 문화 프로젝트 사업이다. 2004년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사업의 큰 뼈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06년 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과 7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아시아 국가간 연대 형성 및 평화 확산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 문화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5월 마지막 금요일 ‘살롱드 월봉’

(문화·인문학강좌)을 통해 16세기 고풍기대승 선생을 모신 월봉서원을 찾았다. 고풍은 1527년 광산구 신흥동에서 물재기진(1487~1555) 선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작은 아버지 복재 기준(1492~1521) 선생이 기묘사화(1519)로 사사(賜死)되자, 기묘 일가는 광주에 자리를 잡았다.

고봉의 부친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한다. “학문의 뜻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고 우애하며 조상을 욕되지 않게 하는 인륜을 배우는 것이다.”

고봉은 31세에 100여권의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발췌해 ‘주자문록’(朱子文錄·4권)을 편찬하였고, 1558년 늦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1559년부터 8년 동안 퇴계 이황(1501~1570)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논쟁인 ‘사칠논변’(四七論辨)을 통해 조선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경연(經筵)에서 임금인 선조에게 전한 말을 묶은 ‘논사록’(論思錄)에서는 군주의 조건으로 치심(恥心)과 수신(修身)을 학문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인 이념은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대중사회의 실현이었다.

월봉서원은 문화재청 ‘살아 쉬는 서원·향교 사업’에서 3년 연속 콘텐츠 활용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문화재청에서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에도 가입됐다. 그리고, 광주 호남대에서 유학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선비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서 외국인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월봉서원 주변에는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민(1950~1980) 열사의 생가가 있고, 한말 도학자 후석 오준선(1851~1931) 선생이 일본에 나라를 뺏긴 한을 달래면서 후진 양성에 힘쓴 호남 의병 활동 본거지인 용진정사가 있다. 시문학을 발간한 박용철 시인 생가 등 많은 문화유적지도 있다.

광주 호남대는 중국 후난대와 공동으로 지난 2006년 공자 아카데미를 공식 개원하여 중국의 교육과 다양한 학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다시 재협약을 체결하여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공자아카데미 최초로 ‘차이나 최고인 과정’을 개설하는 등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후난대는 중국 4대 서원중 하나

로 976년 설립된 약목서원이 있는 곳에 있다. 약목서원은 중국 서원중 유일하게 석·박사 과정인 대학을 두고 있으며, 송나라 전성기에는 장식, 주희(朱熹) 등이 이곳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월봉서원은 조선시대에는 선향배양과 함께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왔고, 현재는 문화재를 활용한 선비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한 교육·관광명소로 광주·전남 지역은 물론 전국민에게 알려져 있다.

고봉 기대승 선생의 민주·선비 정신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결하면 어떻게 생각해본다. 선생의 정신을 기점으로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문화전당(옛 전남도청)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인 ‘문화전당·월봉서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월봉서원 스테이, 한·중국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중심에서 광주시 끝까지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지금까지 미흡했던 7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한다.

社說

‘대통령 아들 특혜’ 조작 공당이 할 짓인가 (公黨)

지난 대선 선거일 나흘을 남기고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까지 공개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도덕성을 갠타하는 선거 중반 최대 변수가 됐다.

그러나 가짜로 드러났다. 녹음파일은 카톡 사진과 교묘하게 결합돼 있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국민의당 박우선 비대위원장은 엇그제 대선 기간 중 당 캠프가 제시한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이었음을 자백했다. 문준용 씨는 문 대통령의 아들이었다.

박 위원장은 “녹음파일은 당원 이 모 씨가 조작, 작성한 것이라고 당에 고백했다”며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송수조작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녹음파일과 카톡 캡처 화면은 국민의당 청년부위원장인 이유미 씨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은 디자인스쿨을 다닌 적이 없는 이 씨의 친척인 것으로 밝

혀졌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과거 대선을 돌아보면 선거 마지막 날 흑색선전과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민의를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그러나 이번 녹음파일 조작 사건은 공당(公黨)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대선 승리에 눈이 어두워 ‘네거티브 공세’를 넘어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정치공작 수준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민의당 행태는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녹음파일을 조작한 당원이 씨든 검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런 허위·조작 범죄가 한 평당원에 의해서만 가능했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따라서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인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야 한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를 전면에 내세운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참여한 범죄는 아닌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이제 민생 쟁거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이 어제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7월 4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상임위 업무 보고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 후보자 검증 등을 놓고 형성됐던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일정 부분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협치를 고리로 민생 현안 및 법안 처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6월 임시국회는 민심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말 그대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대적 화두였던 협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의 힘 겨루기로 비관과 고성만이 오가는 등 과거의 정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제 폐회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나마 회기 내에 통과된 단 한 건의 법안은 정당이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었다. 제 밥그릇을 쟁기는 법안만 일사천리로 합의 처리한 것이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각 당의 대선 공약과 정책을 반영한 민생 법안들은 정쟁의 뒤안으로 밀리면서 이를 바라보는 민심은 가뭄처럼 타들어가고 있다.

여야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7월 임시국회에서 구호뿐인 협치 공세와 기 싸움에서 벗어나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양보하는 것만이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이다. 민심은 말은 없지만 냉정히 주시하고 평가할 것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협치 전선을 구성, 타들어 가는 민생에 시원한 소낙비를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無等鼓

1991년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아영면 설리 뒷산에서 조그만 돌비석 하나가 발견됐다. 비석 앞면에는 ‘절충장군 임세감지묘’라는 글이, 뒷면에는 “성품이 온화하고 어질며 형을 원망하거나 탄하지 않고 따랐다”는 글귀가 새겨 있었다. 남원시는 정조 8년(1784년) 새겨진 이 묘비명의 주인이 박춘보(朴春甫, 흥부)라고 추정하고 따라서 흥부의 고향은 남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마침 발견된 장소가 연소(제비집)

로 쓰인 것인데 흥부전 필사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필사본 첫머리에는 “평양 서촌의 궁민(窮民)이시니 성명은 장천이라, 일찍 두 아들을 낳으니 장(長)은 놀부이오, 차(次)는 흥보이니...”라고 쓰여 있다. 평양에 사는 가난한 장천이 두 아들을 낳으니 장남은 놀부이고 차남은 흥부라는 내용이다. 흥부가 평양 출신에 성씨도 박씨냐 연씨가 아니라 장씨라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몰라한 출신이며 인근에 흥부와 관련된 지명인 ‘하기재’(흥부의 배고픔을 상징)와 ‘옥잠봉’(제비풀)도 있어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판소리 흥부가에는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운봉·함양 두 얼뭍(두 지역이 맞닿은 곳에 흥부가 사는 지라)”라는 대목도 나온다. 남원시 아영면은 실제로 함양군 백전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원시는 이를 근거로 아영면에 흥부마을을 조성하고 1993년부터는 축제(흥부제)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흥부의 고향이 남원이 아닌 평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흥부전 필사본이 최근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833년 ‘흥보만보록’이라는 제목으

흥부의 고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만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